

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12. 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
- 발 의 자: 홍복조 의원 등 9명(원종진, 윤권근, 김화덕, 김기열, 이영빈, 박정환, 배지훈, 박왕규)
- 발의일자: 2021. 11. 17.
- 회부일자: 2021. 11. 19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12. 2)

2. 제정이유

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,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계획 수립 및 시행,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다. 위탁 및 지원(안 제6조)
- 라. 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,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,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, 제47조의4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1. 11. 17. ~ 2021. 11. 29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며,
-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(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)과 제47조의4(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 및 「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의 법률적 정당성이 인정됨.
- 또한 오늘날 사회기반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과정에 장애인, 고령자 등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시설과 정보 접근 등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전환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 수용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
-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관광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“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”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, 무장애관광 정보 서비스 제공, 무장애 여행코스 발굴 및 나눔 여행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주민등록인구의 약 5.10%(달서구 5.18%)에 달하는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볼 때, 노인 및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□ 주민등록인구, 노인인구 및 등록 장애인 현황

	주민등록인구	노인인구	등록 장애인	비고
전국	51,662,290	8,792,644	2,633,026	
대구광역시	2,390,721	414,427	126,398	
달서구	547,340	84,279	28,352	

출처: 국가통계포털(KOSIS, 2021년 10월 기준, 등록 장애인 2020년 12월 기준)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클 뿐 아니라, 관광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 관광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,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